

# ‘한민족의 시원’ 바이칼에서 형제를 만나다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 유라시아 대장정

### ③ 바이칼 호수

전남도교육청 시베리아 횡단 독서토론회학교 동행 취재

#### ‘바이칼 호숫가 돌칼’

서정주

내 전 재산 중에서  
그래도 아무래도 가장 나은 건  
1742미터 깊이의  
시베리아의 바이칼 호숫가의  
바이칼 산맥의 비취 옥으로 만든  
10만 년 전의 구석기시대를 본 딴  
모조품의 초록빛 돌칼 하나이다.

이 세계에서 제일 깊고도 맑은  
바이칼 호수를 담은 내 이쁜 돌칼로  
나는 내 글 쓰는 종이도 자르고,  
꼭 먹고 싶은 과일도 벗겨 먹으며,  
10만 년 전의 한 사만처럼  
아침이면 아침보고  
“내 젊은 어머니 아침”이라고  
소리 밝혀 부르며 살다 가리보다



시베리아 횡단 독서토론회학교 참가자들이 ‘한민족의 시원’으로 알려진 바이칼호수 사라이스키 해변에서 호수욕을 즐기고 있다.

/바이칼 알혼섬=박정욱기자 jwpark@

러시아 남동쪽 이르쿠츠크 인근...면적 3만1500㎢·수심 1742m

학계 한민족 발원지 지목...인근 부랴트족 외모·문화 한국과 비슷



바이칼 알혼섬 후지르마울의 학생들이 부랴트 전통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거렸다. 섬에는 1500명가량 살고 있고, 이들은 주로 고기잡이와 목축으로 살아간다. 최근엔 관광객이 몰려 관광업이 주 소득원이라고 한다. 바이칼호수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부르한 언덕 위에 올라섰다. 어디가 호수이고 어디가 하늘인지 분간하기 힘들다. 눈은 온통 푸른색으로 물들었고, 가슴은 한없이 벅차올랐다. 바이칼의 성스러운 기운이 내 몸 깊숙이 파고들었다. 언덕 위엔 하늘의 정기를 받은 세르게 13개가 수호신마냥 서 있다. 아래 바닷가엔 ‘부르한 바위’가 있다. 사면들이 신 내림을 받거나 함께 모여 의식을 치르는 장소다. 칭기스칸이 이 곳에 묻혔다는 전설도 내려온다. 언덕 북쪽으로는 아름다운 백사장이 장관인 사라이스키 해변이다. 이 곳은 전 세계에서 몰려온 배낭 여행자들의 캠핑촌으로 유명하다. 노을이 지는 석양에 해수욕 아닌 호수욕을 즐겼다. 세상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바이칼에서의 호수욕은 러시아로 출발할 때부터 버려던 것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정갈해짐을 느꼈다. 마을엔 ‘니키타 하우스’가 있는데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맥주를 마시거나 노래를 부른다. 열차학교 참가자들은 이 곳 음악홀에서 즉흥 음악회를 열었다. ‘바이칼이 좋아 놀러 왔었다’는 가이드 김규섭 씨는 “알혼섬은 사머니즘의 성소로 곳곳에 오색천을 매단 세르게가 세워져 있어 저절로 마음이 정갈해진다”며 “망망대해처럼 펼쳐진 대자연 앞에 서면 누구나 철학자이자 사면이 된다”고 말했다. /바이칼 알혼섬=박정욱기자 jwpark@

자로 환생했다. 그것을 본 사냥꾼은 그녀들의 옷을 감춰 두 여자와 결혼했다. 이후 이들 사이에는 11명의 아들이 태어났고, 이들은 11개 부랴트 부족을 이뤘다. 오랜 세월이 지나 두 아내는 사냥꾼에게 옷을 되돌려달라고 애원했고, 사냥꾼은 그 옷을 돌려줬다. 그리고 옷을 받은 두 아내는 다시 백조로 변신해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알혼섬은 칭기스칸 시절 라마교의 탄압을 받은 사면들의 은신처였다. 이런 연유로 모든 ‘사면의 성지’로 여겨지며, 이 곳에선 매년 세계사면축제가 열린다. 배로 10분가량 건너면 알혼섬이다. 선착장에 이른 봉고차 ‘우아직’은 스텝시대(키 50cm이하의 짧은 풀이 자라는 초원)를 가로지르며 40분간을 달려 후지르마울에 이르렀다. 빨강·파랑·초록·회색 지붕을 얹은 통나무집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다. 우리네 1960년대 고즈넉한 시골과 흡사했다. 통나무집 사이 골목에는 코뚜레도 없는 소와 개들이 어슬렁

## 오방색 리본 달며 한국 통일 기원

전남도교육청 평화 통일기원 행사

알혼섬 주민들과 작은 음악회도



“한민족의 시원이라 불리는 바이칼 호수에서 한반도의 통일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바르고 옳은 외교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외교관이 되자’, ‘1%라도 덜 후회할 수 있는 선택하기’ 전남 독서토론회학교(교장 하상규) 참가자들이 바이칼 알혼섬 부르한 언덕에서 오방색 리본에 담은 소망이다. 열차학교는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탄 지 나흘만인 지난 8월5일 바이칼호수를 만났다. 참가자들은 바이칼의 가장 큰 섬인 알혼섬 부르한 언덕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민족번영을 기원했다. 기원 행사는 부랴트 13부족을 상징하는 13개의 세르게가 있는 후지르마울 부르한 언덕에서 마을주민과 함께 열었다. 주민들의 부랴트 전통공연을 시작으로, 세계평화·남북통일·민족번영을 기원하는 오방색 리본 달기, 액운을 쫓는 단신줄뜨기 등 대동한마당이 펼쳐졌다. 후지르 마을 음악홀에서는 작은 음악회도 열렸다. 마을에 있는 음악학교의 교사와 학생의 피아노 연주와 노래, 열차학교 이세운(순천금당고)군의 피아노 연주, 이재영(문항고) 교사의 가곡 ‘오 솔레미오’ 등이 즉석에서 공연됐다.

하상규 교장은 “마을 주민들의 초대로 피아노 연주와 성악 등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며 “서로의 벽을 허물고 세계 평화와 양국의 번영을 기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바이칼 알혼섬=박정욱기자 jwpark@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 진, 동, 신, 대, 교, 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KT, 중앙초교, 관남로, 한화생명, 구.한미쇼핑, 동부소방서, 북경랑 한의원

진료문의 (062) 227-7575